

濟州島地方의 地名語彙 攷(I)

金 洪 植

目 次

I. 序 論	3. '미'
II. 本 論	4. '도'
1. '골'	III. 結 論
2. '내'	

I. 序 論

人間은 일찍부터 그 生活 터전이 되는 땅(地)에 대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 것이며, 그것은 歷史以前 時代까지 遡及하여 올라 갈 수가 있을 것이다.

地名이란 本是 地上의 位置 또는 地域을 表示하는 機能을 가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地名도 無意味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 發生에 있어서 場所 또는 그 地域을 表象하는 自然이나 人文的 事象 等に 根據해서 命名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와 같이 地名은 自然地理的, 文化史的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그 地域에 살았던 先人들의 生活相의 자취를 남긴 社會의 所産이요, 또한 時間이 흐르고 歷史가 쌓임에 따라 累積되어 온 歷史的 所産이다. 그러므로 地名은 人類의 文化發達의 자취를 잘 傳하여 주는 貴重한 文化遺産인 것이다. 即 地名에는 命名 當時의 自然的 및 人文的 環境을 示唆하여 주는 化石과도 같은 것이어서, 地名은 지난날의 社會史·文化史 또는 言語史를 研究하는 貴重한 學問 研究의 資料가 된다.

특히 地名과 言語와는 大端히 密接한 關係에 있다고 하겠으니, 그것은 곧 言語로 命名되는 까닭이다. 특히 어느 地方에 있어서 方言과 地名의 兩者間에는 相互間 매우 비슷한 性質을 지니고 있는 反面 獨自的인 個性도 지니고 있다.

地名中에는 그 名稱이 變하는 것도 있기는하나 그것은 全體로 볼 때 極히 少數이며, 오히려 原型으로 오늘날까지 傳해지는 것이 許多하다. 即 地名은 一般 語辭보다도 保守的이고 固着性이 強하여

民族固有語의 底層이 比較的 外來語의 侵蝕을 받음이 없이 保存되어 있으리라는 點도 또한 期待되는 바 있다.

이와 같이 地名은 文獻 以前時代의 言語를 研究하는 데 貴重한 資料로서 國語의 通時的研究에 있어서 地名의 活用은 大端히 重要な 位置를 차지한다고 본다.

濟州島(以下 '本島'라 稱함) 地方은 陸地部 諸地域에 比較的 豐富하고 特異한 地名이 保有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어느 意味에서는 地名의 寶庫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本島가 지니온 文化的 自然地理的 環境의 特殊性에 緣由함이라고 할 것이다.

本是 地名은 人類生活의 시작과 함께 지어졌을 것이니, 그것은 文字以前時代부터며, 純粹한 固有語로서 命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後世에 漢字가 傳來 使用하게 됨에 따라 固有語로서의 地名이 漸次 漢字名으로 代替되어 나갔으니, 저 三國史記 地理志의 地名變更의 事例 등에서 보아 잘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地名에서 보면 많은 固有語로서의 地名이 漢字名에 의해 消滅되어 消滅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本島地名은 根源的으로 그 大部分이 固有語로 命名되어 呼稱되어 왔으나,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漢字名 地名이 漸次 固有地名勢를 壓倒하기에 이르러, 將次는 傳來의 固有地名은 完全히 消滅될 時期가 到來할 것임은 必至의 事實로 보아진다. 그것은 國家行政의 必要에서 모든 公簿上의 記錄과 公式 名稱을 漢字地名으로 變更 代替 使用하여 왔던 關係로 漢字地名은 國家 公式地名이란 優位性으로 固有語地名을 壓倒하기에 이르고, 또 새로운 世代의 呼吸과 함께 代替 傳播되고 있는 反面, 固有語로서의 地名은 俗名으로 轉落, 傳播에 優位性을 빼앗기고, 다만 個個 鄉土人들만의 愛着을 받으며, 한갓 그 命脈을 維持해 오고 있는 實狀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實態는 現地調査를 나갔을 때도 實感하는 일인데, 地名의 물음에 대하여 大概 젊은 世代나 所謂 識者然하는 層에서는 漢字名으로 應答 附會하려 드는 境遇가 許多하다. 그러나 地名의 解釋에 있어서 漢字의 使用 以前에 된 固有地名을 漢字의 釋과 關聯지어 說明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漢字地名勢는 앞으로 漸漸 盛하여 갈 것이며, 相對的으로 固有地名은 漸次 消滅하게 될 運命에 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라져 가는 固有地名을 調査 發掘 採集하여 記錄하여 두는 일이 時急하다고 할 것이다.

筆者는 이미 本島의 地名接尾辭中 그 一部에 대하여 鄙見을 든 바 있으나¹⁾ 本稿 亦是 그 繼續的인 作業의 一環으로, 特히 國語史的인 觀點에서 古記錄과의 脈絡에 可能性을 內包하는 몇 地名 語彙에 대하여 考察, 그 歷史의 背景과 語源 등을 찾아 보고, 또 隣近 同系語와도 그 異同을 比較하여 이들 地名上에서 본 本島方言(以下 '方言'이라 稱함)의 位置 등에 대해서도 究시하여 보려 하거니와, 本 小稿에서는 紙面 關係上 그 一部에 限하고 餘他는 다음 機會로 미룬다.

1) 拙稿, "濟州島地方의 地名에 대하여", 「濟州大論文集」第10輯, 1978.

II. 本 論

1. '골·굴'

本島의 地名語彙中에서도 '골·굴'은 全島 一圓에 걸쳐 比較的 高率 分布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에 그 地名例를 들어 본다.

가. '골'

칠성골	[濟州市 一徒洞]	나문기골	[表善面 城邑里]
객사골	[濟州市 一徒洞]	아뫏골	[表善面 城邑里]
샛뫏골	[濟州市 一徒洞]	막은골	[表善面 城邑里]
막은골	[濟州市 一徒洞]	사포기골	[表善面 城邑里]
내곽골	[濟州市 一徒洞]	객사골	[表善面 城邑里]
항 골	[濟州市 二徒洞]	옥 골	[表善面 城邑里]
나뫏골	[濟州市 二徒洞]	상 골	[表善面 城邑里]
두뫏골	[濟州市 二徒洞]	창뫏골	[表善面 城邑里]
영뫏골	[濟州市 三徒洞]	벌원골	[表善面 城邑里]
창뫏골	[濟州市 三徒洞]	삼박골	[南元邑 泰興里]
의약골	[濟州市 三徒洞]	매척골	[西歸浦市 好近里]
새방골	[濟州市 三徒洞]	막은골	[西歸浦市 橋達里]
물낭골	[濟州市 三徒洞]	장 골	[西歸浦市 月坪里]
뱅뫏골	[濟州市 三徒洞]	막은골	[安德面 태평리]
해짚골	[濟州市 建入洞]	대정골	[大靜邑 保城里]
산지뫏골	[濟州市 建入洞]	내정골	[大靜邑 安城里]
생갓골	[濟州市 龍潭洞]	묵 골	[翰京面 楮旨里]
하 골	[朝天面 朝天里]	벽 골	[翰京面 龍水里]
중 골	[朝天面 朝天里]	천안골	[涯月邑 郭支里]
상 골	[朝天面 朝天里]	큰안골	[涯月邑 郭支里]
안재기골	[舊左邑 下道里]	세맹골	[涯月邑 納邑里]
정낭골	[表善面 城邑里]	동중골	[涯月邑 納邑里]

나. '굴'

모흥굴	[濟州市 二徒洞]	중맹이굴	[濟州市 吾羅洞]
독짚굴	[濟州市 二徒洞]	택굴	[濟州市 我羅洞]

감낭굴	[濟州市 我羅洞]	항애굴	[南元邑 新豐里]
농낭굴	[濟州市 寧坪洞]	중낭굴	[安德面 上倉里]
노공이굴	[濟州市 寧坪洞]	중통굴	[安德面 上倉里]
꼭낭굴	[濟州市 外都洞]	비자굴	[安德面 柑山里]
함박이굴	[濟州市 老衡洞]	광적굴	[安德面 柑山里]
중툃굴	[朝天面 咸德里]	왕주굴	[安德面 倉川里]
방축굴	[舊左邑 漢東里]	송청굴	[安德面 大坪里]
피나리굴	[舊左邑 松堂里]	방칭이굴	[安德面 大坪里]
범산이굴	[舊左邑 松堂里]	재역굴	[翰京面 造水里]
한 굴	[舊左邑 松堂里]	좌니굴	[翰京面 造水里]
엉너굴	[舊左邑 下道里]	뭇 굴	[翰京面 楮旨里]
중텅굴	[舊左邑 下道里]	드생이굴	[涯月邑 納邑里]
소앵이굴	[舊左邑 下道里]	금주굴	[涯月邑 納邑里]
매밭징굴	[表善面 兔山里]	항이굴	[涯月邑 納邑里]
뭇태남굴	[表善面 加時里]	늑송이굴	[涯月邑 納邑里]
신쟁이굴	[南元邑 新興里]	하니굴	[涯月邑 納邑里]
살장굴	[南元邑 新興里]	세맹굴	[涯月邑 納邑里]
중성굴	[南元邑 南元里]	이승굴	[涯月邑 今德里]
도령굴	[南元邑 新豐里]	사쟁잇굴	[涯月邑 郭支里]

以上 本島 地名에서 ‘굴·굴’이 接尾하는 地名例를 들어 보았는데, 이 외에도 이 地名例는 全島에 걸쳐 더 많이 分布되어 있으나 紙面 關係上 이만 줄였다.

위 地名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굴’과 ‘굴’ 變形의 地名 分布는 이들 地名型이 共히 kvl 型으로, 다만 母音差에 依한 異形態²⁾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李朝 文獻語에서도 「마리/머리(頭), 갓/것(物), 아버지/어비(父), 굴/굴(穴)」과 같은 母音對應現象(ablaut)에 의한 異形態의 語例를 찾아 볼 수 있으며, 또 本島 方言現象에서도 「구멍/고망(穴), 구녕/고냥(穴), 주먹/조막(拳)」 등과 같은 異形態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굴’과 ‘굴’ 接尾辭는 本島 全域에서 制限없이 分布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先行語辭의 開閉音節에도 制約을 받지 않음과, 閉音節의 母音의 種類에도 無關하게 實現되고 있음은 以上 例示한 地名例에서도 알 수 있겠다. 即 ‘굴’과 ‘굴’은 音聲적으로 同一한 環境에서 實現되고 있는 듯 하니, 이 ‘굴’·‘굴’ 變形의 並存 現象은 어떤 音聲의 環境 要因에 基因하는 것이 아니라고 推定된다.

그리고 이 兩 地名 接尾辭의 分布狀態는 그 數方面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한 分布 狀態를 보여 주고 있으며, 各 地域的 分布 狀態도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

本島의 이 kvl 型 地名 接尾辭는 大概 山谷, 邑落, 洞 등을 意味한다고 본다.

2) 李炳鈺, “古代 南北間方言의 異同에 對하여”, 「국어국문학」 제90호, 국어국문학회, 1983, p. 52.

그러면 이들 'kvl'型 地名語辭가 갖는 國語史의 背景 等에 대하여 古文獻記錄과 關聯하여 살펴 본다.

本島 地名 'kvl'型은 高句麗系 地名 '忽'型和 關聯되는 것으로 推定되며, 또 中世國語의 '골' (谷·洞)과도 比較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三國史記」地理志 所載 地名中 '忽'型 中에서 現在 確認할 수 있는 地名例³⁾를 들어 보면

述爾忽(坡州)	買召忽(仁川)
買忽(水原)	冬比忽(開城)
烏阿忽(長端)	馬忽(抱川)
奈夸忽(安城)	泥沙波忽(麻田)
仍忽(陰城)	加羅忽(杆城)
也次忽(金城)	冬忽(黃州)
德頓忽(谷山)	于次吞忽(瑞興)
比列忽(安邊)	

또 15世紀 文獻 龍飛御天歌에서는 '골' 語形을 찾아 볼 수 있다.

가막골 [加莫洞]	<上:95>
마근담골 [塙洞]	<上:463>
ㅁ궘골 [舍音洞]	<上:477>
다대골 [鞆鞆洞]	<上:496>
비암골 [蛇洞]	<下:85>

本島의 地名接尾辭 '골'은 以上 舉例한 文獻記錄과는 어떠한 關聯이 있으며, 또 어떻게 變하여 왔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날 本島 地名을 探索하여 불만한 文獻資料가 全無한 現 段階에서는 한갓 推測의 限界를 벗어날 수가 없겠으나, 15世紀 文獻(龍飛御天歌)에 나타나는 '골'(洞)과 本島 地名接尾辭 '골'은 서로 比較가 되는 같은 脈絡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지며, 또 本島의 朝天面 및 舊左邑 山間 地帶 一部에 分布되어 있는 '~屹'型 地名은 高句麗系 地名 '忽'型和 關聯하여 比較하여 불만한 매우 暗示的인 것이라 하겠다.

대홀(大屹)	[朝天面 大屹里]
선홀(善屹)	[朝天面 善屹里]
와홀(臥屹)	[朝天面 臥屹里]
금홀(琴屹)	[舊左邑 德泉里]
남홀(南屹)	[舊左邑 上道里]

以上 地名語例에서 地名接尾辭로 '~屹'(홀)을 抽出하여 볼 수 있으니, 이것은 '忽'과 어떤 關聯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高句麗 地名에 많이 쓰인 '忽'은 漢字語音이 그 當時도 '홀'이었으리라 믿어지며, 이에 該當되는 말로 滿洲語 'holo'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⁴⁾

3) 崔範勳, "韓國地名學研究序說", 「국어국문학」 제42·43호, 국어국문학회, 1969, p. 146.

4) 金亨奎, 「國語史研究」, 一潮閣, 1974, p. 7.

忽—holo

아린 이 호로(山谷—외수골) [同文·上·6]

호로(山谷—외수골) [漢淸·一·39]

holo(山谷, 溝) [滿和·p. 210]

또 滿洲語에서는 郡縣의 뜻으로 'golo'를 얻어 볼 수 있다.

고로(省) [同文·上·40]

golo(河身, 省) [滿和·p. 176]

또 우리 文獻을 通해 보아도 '忽'이 'hol'과 'gol'의 두가지로 읽힌 例를 찾아 볼 수 있다.

召忽島—조콜섬 [龍歌·六·58]

兀兒忽里—울후리 [龍歌·十·28]

以上에서 볼 때 '忽'은 'hol'과 'gol' 兩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또 오늘의 滿洲語 'holo' 또는 'golo'와도 相通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 'hol'은 그 後 漸次 消滅되어 앞에서 든 바와 같이 15世紀 國語에서 [兀兒忽里—우후리]와 같이 單 하나의 'hol' 語例를 남겼을 뿐 오늘날에 와서는 消滅되어 버렸다고 推定된다.

그리고 本島의 地名語辭 '屹(홀)'은 高句麗系 地名語 '忽(홀)'과 어떤 關聯이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卽 元來 國語 地名에는 'hol'과 'kol' 兩型이 並存하였을 것으로 推測되며, 그 後에 'hol>kol'로 變하여진 結果 오늘날에는 單一型인 'kol'만이 남게 된 것으로 보아지며, 本島는 過去 歷史的 地理的 特殊性으로 말미암아 'hol'型이 化石化되어 殘存되어 있는 것이 이 '홀(屹)' 地名語辭가 아닌 臆測을 하여 본다.

2. '내'

本島 地名에는 또 '~내'를 接尾하는 地名 語例가 全道 一圓에 分布되어 있는 것으로 보나, 그 數 爻面에서 볼 때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본다. 다음에 그 地名 語例를 들어 본다.

닥그내	[濟州市 龍潭洞]	한달내	[南元邑 南元里]
도고내	[濟州市 外都洞]	빗내	[安德面 知順里]
데물내	[濟州市 外都洞]	남밭내	[安德面 柑山里]
무드내	[濟州市 龍崗洞]	창고내	[安德面 倉川里]
드른내	[濟州市 內都洞]	날내	[大靜邑 東日里]
원장내	[濟州市 內都洞]	웃날내	[大靜邑 新坪里]
감발내	[朝天面 橋來里]	서날내	[大靜邑 日果里]
구린내	[舊左邑 松堂里]	자구내	[翰京面 高山里]
수뇌	[城山邑 古城里]	고내	[涯月邑 高內里]
여우내	[南元邑 新興里]		

以上の 地名 語例에서 볼 때 '내'는 一種의 地名接尾辭로 볼 수 있겠으며, 數의 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豊富한 편은 못되나 全島의 으로 比較的 高루 分布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 ‘내’ 接尾辭가 붙는 地名의 特徵은 特別한 것을 찾아 볼 수는 없으며, ‘~내’는 大概 地名에서 ‘村落, 邑洞’ 등의 意味와 對應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 ‘내’ 地名語辭도 根源의 으로 볼 때, 兩面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첫째는 ‘내’가 ‘壤’의 뜻으로 쓰여진 地名과 둘째는 ‘川’을 뜻하는 ‘내’에서 由來되어 처음에는 川名을 指稱하던 것이 나중에 그 河川名 周邊의 地名으로도 쓰이게 되는 境遇를 생각할 수 있겠으며, 本島 地名例에서도 이런 境遇가 相當數 있을 것으로 보나, 앞에 든 地名語例에서는 川名 乃至 川名에서부터 由來되었다고 보아지는 것은 可及의 除外하였다.

그러면 本島에 分布되고 있는 이 ‘내’型 地名은 어데서 由來하는 것이며, 그 語源 및 國語史의 背景 等に 대하여 文獻記錄과 關聯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高句麗系地名에는 ‘壤·土’를 表示하는 ‘內·奴·惱’ 등의 使用例가 보인다.

槐壤郡 本高句麗仍斤內郡 [三國史記, 地理二]

黑壤郡 本高句麗今勿奴郡 [同上]

荒壤郡 本高句麗 骨衣奴郡 [同上]

穀壤郡 本高句麗仍伐奴縣 [同上]

休壤郡 一云金惱 [三國史記, 地理四]

於斯內縣 一云斧壤 [同上]

以上은 모두 高句麗 地名으로 ‘壤’의 對로 ‘內·奴·惱’의 表記를 하였다. 이렇게 新羅에 와서 ‘壤’字로 意譯된 地名이 高句麗 本地名에는 ‘內·奴·惱’로 적었으니, 이것은 아마도 高句麗語를 그대로 表記한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서 ‘內·奴·惱’는 ‘넉·노’로 읽을 것이며, 이것은 땅(土, 壤)을 뜻하는 高句麗語로 볼 것이다.

다음에 우리 古文獻에서 찾아 보면

나(ㅅㅏ 地) [漢清一·33]

나(ㅅㅏ 地頭) [同文上·6]

나 우시힌(ㅅㅏ ㅅㅏ 地濕) [漢清一·33]

以上에서 보면 땅(土·壤)을 뜻하는 滿洲語系인 이 ‘나’(地) 語辭는 古代부터 우리 나라에 轉入 使用된 듯 하다.

그리고 이 ‘na’는 高句麗地名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 該當되는 말은 現在 南部 通古스語에서 도 널리 分布되고 있다.

滿洲語——na(地)

女眞語——nah

靉語——na

以上 例舉한 ‘na’ 語辭는 다 ‘地·壤·野·시골’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은 高句麗系 地名語 ‘넉·노’와 比較된다고 본다.

또 日本語와 比較하여 볼 때, 日本에서 이 na系의 地名을 보면⁵⁾ 「忽那, 惠那. 江奈, 伊奈, 桑

5) 李炳銑, “古代 日本 地名研究”, 「語文教育論集」第7輯, 釜山大師大國語教育科, 1983, p. 11.

名, 椎名, 川名」 등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 「那·奈·名」는 ‘na’의 表記로 본다.

以上 隣近 同系語와의 比較에서 보면 高句麗系地名 ‘닉·노’는 南部통구스諸語의 na(地), 그리고 日本語의 na(地)와 서로 對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以上에서 볼 때 Tungus-Manchu語에서 그 語例를 찾아 볼 수 있는 ‘壤’의 뜻을 가진 ‘na’가 高句麗地名에 ‘內·奴·惱’로 그대로 表記되어 있으며, 이것은 또 高句麗地名에서만 볼 수 있을 뿐으로 現在 우리말에서도 그 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⁶⁾

以上에서 考察하여 본 바로 本島 地名接尾辭 ‘내’는 高句麗系 地名語辭인 ‘內·惱’(니)와 比較되는 같은 脈絡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推定되니, 本島에는 高句麗系 地名語辭인 ‘내’가 오늘날에도 殘存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우리 國語의 研究에 있어서 方言의 問題點을 文獻資料에 根據해서 追究함으로써 얻어진 結果라고 할 수 있겠으며, 또한 逆으로 文獻資料上的 여러 疑問點은 方言의 究明에 의해서 解明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3. ‘미’

本島의 地名中에는 ‘~미’를 接尾하는 即 ‘미’型 地名接尾辭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 ‘미’型 地名接尾辭는 ‘미’ 外에 ‘뫼·메’等 形態上 若干의 混淆를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미’型的 한 異形態로 보고 ‘미’를 그 代表型으로 삼는다.

다음에 그 地名 語例를 例示하여 본다.

연미	[濟州市 吾羅洞]	뫼미	[南元邑 爲美里]
동도노미	[濟州市 吾羅洞 井實]	마개미	[南元邑 新豐里]
눈미	[朝天面 臥山里]	보르미	[安德面 上倉里]
비찌미	[舊左邑 松堂里]	담미	[大靜邑 新桃里 畚尾洞]
새물미	[舊左邑 松堂里]	두미	[翰京面 頭毛里]
고살미	[舊左邑 下道里]	물미	[翰京面 高山里]
큰물미	[城山邑 古城里]	큰물미	[翰京面 新陽里]
난미	[城山邑 蘭山里]	도노미	[翰林邑 歸德里]
천이미	[城山邑 始興里]	물 뫼	[涯月邑 水山里]
물미	[城山邑 水山里]	서도노미	[涯月邑 於道里]
최보미	[表善面 城邑里]	중내미	[涯月邑 納邑里]
큰사스미	[表善面 加時里]	하에미	[涯月邑 納邑里]
상촌미	[表善面 上川里]	노꾸메	[涯月邑 納邑里]
하촌미	[表善面 下川里]		

以上 地名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型 地名도 全島 一圓에 高루 分布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金亨奎, Op. cit., p. 12.

그리고 이 ‘미’ 地名 接尾辭는 地名核語에 接尾되어 大概 部落名 乃至는 地境名을 나타낸다.

또 이 ‘미’型 地名 語辭가 接尾하는 地名의 特徵은 별로 찾아 볼 수 없으나, 大體로 이 地名은 文化的 環境 要因에 의한 것이 아니라, 自然地理의 環境의 特徵에 의해서 稱名된 것으로 推定되는데, 이 ‘미’型 地名의 形成은 그 根源이 ‘水·井·山’의 뜻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앞에 例示한 現 地名에서는 다만 ‘村·部落·洞’을 指稱하는 뜻만이 있을 뿐, ‘水·井·山’ 등의 뜻과는 直接的인 關聯이 없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모든 人類의 居住에는 물(水)의 有無가 가장 重要한 必須 條件으로 물과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古代의 村락지는 물이 많은 곳에 集團的으로 모여 形成되었을 可能性이 많다고 본다. 그래서 村落의 이름이나 地境의 이름에도 ‘水·井’의 뜻을 起源으로 가진 말이 化石語로 남아 있을 수 있다.

本島의 地名 語辭 ‘미’도 根源의 起源으로 ‘水·井’을 意味하는 語辭로서 現代語에 化石語로 變하지 않고 내려 오는 것이 아닌가 想定된다.

그러면 이 地名語辭 ‘미’의 語源 및 그 뜻은 어떤것인지 文獻記錄과 關聯지어 考察하여 본다.

高句麗系 地名에서는 「水·河·川·井」 등을 表示하는데 「買·米」 등으로 使用하고 있다.

南川縣一云南買	[三國史記. 37]
述川郡一云省知買	[三國史記. 37]
買勿郡一云水城郡	[三國史記. 37]
泉井口縣一云於乙買串	[三國史記. 37]
水谷城縣一云買旦忽	[三國史記. 37]
橫川縣一云於斯買	[三國史記. 37]
深川縣一云伏斯買	[三國史記. 37]
水入縣一云買伊縣	[三國史記. 37]
泉井郡一云於乙買	[三國史記. 37]
內乙買郡一云內甬米	[三國史記. 37]

위 地名 語例에서 「買·米」가 「水·川·井」과 對應하는데, 이 「買」등은 水·川·井을 뜻하는 高句麗語일 것이다.

그런데 이 ‘買’가 어떠한 語形을 表記한 것인가 疑問이다.

이에 대해서 學者間에 여러 說이 있으나 李基文教授⁷⁾는 ‘買’를 mai 또는 mie로 再構하였으며, 또 金芳漢教授⁸⁾는 「買(mai), 米(mi)」로 보았으며, 金永鎮教授⁹⁾는 ‘買’를 水·川·井의 뜻으로 mi音으로 再構하였다.

以上에서 보아 ‘買·米’ 등은 ‘水·川’의 意味를 갖는 高句麗系 言語로 물이 혼란 곳의 特性에서 채택된 地名으로 보인다.

그러면 本島 地名에 實現되고 있는 ‘미’는 高句麗語 ‘買’等과는 어떤 關聯性이 있는 것인지 疑問

7) 李基文,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74, p. 33.

8) 金芳漢, “原始韓半島”, 「韓國文化」1, 1980,

9) 金永鎮, “加耶語에 대하여”, 「加羅文化」第1輯, 慶南大加羅文化研究所, 1982, p. 63.

視된다. 單純한 音의 一致만을 가지고 兩 語彙를 比較한다는 것은 危險한 일이긴 하나, 本島의 地名 語辭 ‘미’ 中에는 高句麗語 ‘貫’에서 緣由된 것이 있으리라고도 推測된다.

그러면 本島의 地名 接尾辭 ‘미’는 어데서부터 由來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 본다.

여기서 ‘미’는 ‘山’과 對應하는 固有語 地名의 취락명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니, 中世國語의 ‘뫼’(山)가 變하여 ‘미’音으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 例示한 地名에서도 이 ‘뫼’와 ‘山’의 對應 關係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地名例를 相當數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은 地名의 保守性과 固着性으로 말미암아 中世國語의 ‘뫼’(山) 語詞가 오늘날 地名에 ‘뫼’의 變形으로 ‘미’가 남게 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모든 ‘미’音이 ‘山’이란 뜻의 起源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前述한 바와 같이 ‘水’의 高句麗語는 大概 ‘리·미’로 推定되며, 이것은 中期語의 ‘물’과는 形態上 크게 差異나는 것이라 본다. 그래서 本島 地名 接尾辭 ‘미’도 起源의 由來로 ‘水’와 對應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 現 本島 地名例에서 볼 때 ‘미’~‘水’의 對應例는 별로 發見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미’는 元來 語源이 ‘水’와 關聯이 있던 것이었으나, 後에 ‘물’(水)과 代替되면서 이 ‘미’는 消滅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그러나 地名은 極히 保守的인 까닭에 오늘날 地名에 이 ‘미’ 語辭가 化石語로서 남겨진 것이라고 想定된다.

또 이 ‘미’ 語辭가 根源의 由來로 ‘水’의 뜻을 가졌음은 本島方言에서 보드라도 ‘미내기’(미나리), ‘새미’(泉) 등의 ‘미’는 元來 ‘水’를 뜻하는 말이 아니었던가 推定되는데, 이는 地名接尾辭 ‘미’의 語源 追究에 있어 매우 示唆的이다.

即 ‘泉’은 오늘날 共時態로는 ‘샘’이나 方言地名에서는 二音節인 ‘새미’로 實現된다.

동새미	[濟州市]	바랑새미	[涯月邑]
새새미	[濟州市]	새미오름	[朝天面]
새미톨	[濟州市]	개새미	[安德面]
꿇남새미	[濟州市]	새미동	[安德面]
누리새미	[涯月邑]	한새미	[翰林邑]

이 외에도 ‘새미’ 地名例는 全島에 걸쳐 無數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새미’는 ‘샘’의 前段階 語形으로 推測을 하며, ‘새미 샘’과 같은 語形變化의 結果 ‘샘’이 된 것으로 본다. 그것은 國語에서 語末母音脫落現象이 일찍부터 일어나 그 結果 二音節인 ‘새미’ 語形이 一音節인 ‘샘’으로 縮小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새미’를 ‘샘’의 再構形으로 推定하여 보며, 이것은 地名의 甚한 保守性과 固着性으로 오늘날 化石語로 남게 된 것이 이 本島 地名語辭 ‘새미’일 것이다. 그래서 이 ‘새미’의 ‘미’는 ‘水’와 對應되는 것으로 想定된다.

또 隣近 同系語와의 比較에서 볼 때도 滿洲語 ‘mu-ku’의 ‘mu’, 日本語 ‘idzi-mi’(泉)의 ‘mi’와 比較되니, 이와 같이 比較的 觀點에서 보아도 ‘mi’와 ‘水’의 對應 關係를 推測할 수가 있겠다.

4. ‘도’

本島의 地名中에는 또 ‘도’를 接尾하는 一連의 地名例를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에 이 ‘도’型 地名語例를 들어 본다.

별도	[濟州市 禾北洞]	솔도	[安德面 廣坪里]
아라도	[濟州市 外都洞]	고른잣도	[表善面 城邑里]
고분잣도	[濟州市 我羅洞]	가죽물도	[表善面 城邑里]
정도	[濟州市 我羅洞]	점맷도	[表善面 城邑里]
곰배물도	[濟州市 寧坪洞]	볼래남도	[表善面 城邑里]
큰굿도	[舊左邑 德泉里]	낫밧도	[表善面 城邑里]
벨네넛도	[南元邑 新禮里]	울한도	[表善面 城邑里]
만지넛도	[南元邑 新禮里]	늑남도	[表善面 城邑里]
세민도	[南元邑 下禮里]	산넛도	[表善面 城邑里]
산넛도	[西歸邑 上孝里]	번짓도	[表善面 城邑里]
쇠물도	[安德面 上倉里]	웃잣도	[表善面 加時里]
문이남도	[安德面 上倉里]	곰은장도	[翰京面 高山里]
모살도	[安德面 上倉里]	큰무덤도	[翰京面 高山里]
셋정도	[安德面 上倉里]	이생이왓도	[涯月邑 郭支里]
므르잣도	[安德面 上倉里]	므를도	[涯月邑 郭支里]
쉬는광도	[安德面 上倉里]	앞넛도	[涯月邑 郭支里]
살채기도	[安德面 上倉里]	가죽물도	[涯月邑 郭支里]
대난도	[安德面 上倉里]	덧남도	[涯月邑 納邑里]
곰도	[安德面 上倉里]	소왕도	[涯月邑 納邑里]
쇠못도	[安德面 倉川里]	모틀도	[涯月邑 納邑里]
개난도	[安德面 倉川里]	큰남도	[涯月邑 納邑里]
므려리도	[安德面 柑山里]	소리남도	[涯月邑 納邑里]

‘~도’ 接尾 地名은 全島에 걸쳐 比較的 高루 分布되어 있다고 보며, 그 語例도 許多하나 여기서 는 이만 들기로 한다.

‘~도’ 接尾 地名이 갖는 地形的 環境의 特徵으로 大概의 境遇 通路, 入口 및 건널목 等に 位置하 는 곳의 地名에 흔히 使用되었다고 본다.

또 方言에서 이 ‘도’ 語辭는 原語民間의 談話에서도 共時態로 實現되고 있는 것으로, 大概「通 路, 出入口, 건널목」等の 뜻으로 쓰인다.

도에 앓지 말라(通路에 앓지 말라)

도를 막다(通路를 막다)

도막은 발(出入口가 막힌 발)

넛도(내의 건널목)

以上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는 原來 自立名詞로서 「通路, 出入口, 건널목」等の 意味를

갖는 語辭였음을 알겠다.

그래서 이 ‘도’는 前掲 地名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元來는 그 地勢 環境의 特徵에 따라 ‘○○도’와 같이 地名으로 使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도’型 地名에서 보면 ‘도’가 갖는 元來의 뜻과 對應하는 地名例도 있으나, 그 大部分은 單純한 地境, 村落等の 意味와 對應됨을 알 수가 있으니, 地名에서의 이 ‘도’는 거의 接尾辭化하여 地境 도는 村, 里에 對應되는 單純한 地名接尾辭化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음에 이 ‘도’型 地名 接尾辭의 由來 및 語源등에 대해서 文獻記錄과 關聯하여 알아 본다.

三國史記(卷四四)에 「旃檀梁 城門名 加羅語謂門爲梁云」이라고 하였다. 이 記錄에서 보면 加羅語에서 「門」을 「梁」이라 한다고 하였으니, 이 「梁」의 讀音에 대해서는 三國遺事(卷一辰韓條)에 「云沙涿, 漸涿 等(羅人方言. 讀涿音爲道. 故今或作沙梁. 梁亦讀道)」라고 하였으니, 이 記錄에서 볼 때 「梁」은 그 音이 「道」와 같음을 알 수가 있겠으며, 따라서 「梁」은 그 音이 「도」로 推定된다.

이에 대해서 李基文教授¹⁰⁾는 이것은 加羅語라고 記錄된 唯一한 一例로 推定하고 高句麗語 資料에 이 單語가 보이지 않으나, 古代日本語의 to(門)에 一致하고, 또 滿洲語의 du-ka(門)의 存在는 그 可能性을 示唆해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日本語에서 보면 [to]는 「戶·門」의 意味를 가졌고, 地名에서도 많은 例를 찾아 볼 수 있다.

荒戶[ara-to]	[福岡市中央區]
下山門[simojama-to]	[福岡市西區]
江戸[e-to]	[東京]
大和町[jama-to]	[春日市]

以上 文獻資料와 本島의 地名 接尾辭 ‘~도’를 比較 檢討하여 볼 때, 文獻에서 加羅語 資料로 나오는 ‘門(도)’와 本島 方言語辭 ‘도’와는 形態上으로서나 그 意味上으로도 거의 一致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古記錄과 本島 方言과의 關聯性은 決코 偶然이 아니고 住民의 交涉 乃至 移動에 따른 言語 交流의 結果라는 歷史性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本島와 加羅間에 있어서는 일찌기 住民間의 交涉 乃至는 加羅 地域에서부터의 住民의 移入이 있어 本島 方言에 至대한 影響을 미친 것이 아닌가 推定되는 것이다.

또 日本語와의 關聯性에 있어서도, 이것은 偶然이 아니라 過去 民族의 移動에 따르는 言語의 交流 關係를 豫想할 수 있겠으니, 李基文教授¹¹⁾는 이에 대해서 弁韓 乃至 加羅 地域을 中心으로 하여 새로운 扶餘系들이 紀元前 三世紀頃에 北九州로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하나의 假說을 세웠다. 그렇다면 이 加羅로부터의 移住民의 言語는 原始日本語의 形成에 至대한 影響을 주었으리라고도 推定된다.

그리고 日本語의 ‘to(戶)’와 本島方言과의 比較에서 形態的으로나 意味上으로 거의 一致되는 對

10) 李基文, 「韓國文化史大系」,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8, p. 92.

11) Ibid., p. 92.

應關係를 보여 주고 있음은 興味로운 일이며, 이것 또한 偶然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으로 國語史的으로 매우 示唆的이다.

Ⅲ. 結 論

本島의 地名語彙中에서 國語史的으로 問題가 될만한 몇 語辭를 對象으로 文獻資料와 關聯하여 考察하여 본 바를 다음에 要約하여 봄으로써 結語로 삼고자 한다.

1. 本島 地名語辭 ‘골·굴’은 大概 山谷, 村落, 洞 등을 意味한다. 이것은 高句麗 地名語 ‘忽’에서 根源된 같은 脈絡에서 파악할 수 있겠으며, 또 中世語의 ‘골’과도 對應된다고 본다.

또 本島 地名에는 ‘홀(屹)’型이 一部에 分布되고 있는데, 이는 高句麗系 地名 ‘忽(홀)’과 比較됨직 하며, 滿洲語의 ‘holo’, 또 日本語의 ‘ホロ(holo)’와도 比較됨을 示唆하여 주는 國語史的 意義를 갖는 것으로 본다.

2. ‘내’型 地名은 方言에서 大概 村落, 邑洞 等の 意味를 갖는다.

또 이 ‘내’는 文獻資料에서 볼 때, 高句麗系 地名인 ‘內·惱’와 比較되고, 또 南部 統古스 諸語의 na(地), 그리고 日本語 na(地)와 서로 對應된다고 볼 수 있는 國語史的 背景을 갖는 것으로 본다.

3. ‘미’型 地名語辭는 現 地名에서는 單純한 村, 部落, 洞 들의 뜻과 對應되나, 語源的으로는 ‘水·井’을 意味하는 語辭였다고 본다.

이 ‘미’ 地名 語辭도 所謂 高句麗系 地名語로 알려진 ‘水·井’을 意味하는 ‘買·米’ 등과 比較되는 것으로, 現在는 消滅語가 되어 버리고 一部 方言語彙 및 地名에 化石語로 남겨진 것이 現 方言 地名語辭 ‘미’라고 보며, 隣近 同系語와의 比較的 觀點에서 보드라도 그리 受肯이 간다.

4. ‘도’型 地名 接尾辭는 方言에서는 「通, 入口, 門」을 뜻하는 自立名詞로도 쓰이나, 地名에서는 地境, 村, 里에 對應되는 單純한 地名 接尾辭로 쓰인다.

文獻記錄上에서 보면, 이 ‘도’ 語辭는 加羅語資料에 찾아 볼 수 있으며, 또 滿洲語 等 同系語와의 比較에서 보아도 一致點을 發見할 수 있어 매우 示唆的이다.

이런 等으로 매우어 過去 加羅로부터 本島로 一部 住民의 移入이 있어 本島 方言에 影響을 미쳤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5. 一部 地名資料의 考察만 가지고 本島方言의 歷史性에 대하여 云謂할 수는 없겠으나, 以上の 地名語의 考察에서 볼 때, 本島方言은 地理的으로 近接한 南方 韓族系語보다 오히려 北方系인 高句麗語와 密接한 關係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暗示를 받게되며, 또 加羅語하고도 一聯의 關係가 있었음을 示唆하여 준다. 그러나 이에는 앞으로 여러 視角에서 더 깊은 穿鑿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Summary

A Survey of the Words Used in the Place Names in Cheju-do

Kim Hong-shik

The place names are rare cultural and are like a fossil that suggests the natur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an age. It is a cultural science much devoted to the history, geography and folklore.

Especially, the relation of the place name and the language is quite close. The place name is stronger in solidity rather than the dialect. It is expected that the place name has an underlying form of a unique language of a nation without the relative intrusion from the foreign language. Thus, in the study of dialects, the use of the place names is very important, the writer thinks.

In this sense, this paper studies the foundation, background, form, meaning and etymology of the name from the linguistic point of view with an emphasis on the suffixes of the place names of Cheju-do. This study is also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helping a study on the dialects of Cheju-do.

As the result of the study of the suffixes of the place names of Cheju-do, the foundation of the place names of Cheju-do has a factor of the natural and geographical environment than the cultural one.

The suffix of the place names of Cheju-do has an old stratum of many languages because of the strong solidity. Not only is it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good references of the diachronic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but also it gives a lot of suggestions to the systematic survey of the dialects of Cheju-do. In the near future the education, analysis, classification of the suffix of the place names are linguistically studied.